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November 2022 Vol. 04 (통권 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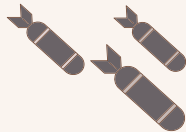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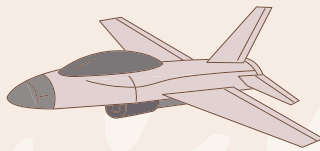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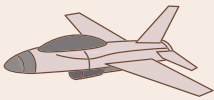
FTA FOCUS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강원도 무역기업 대응방안**

엄광열 (재)영월산업진흥원장, 경제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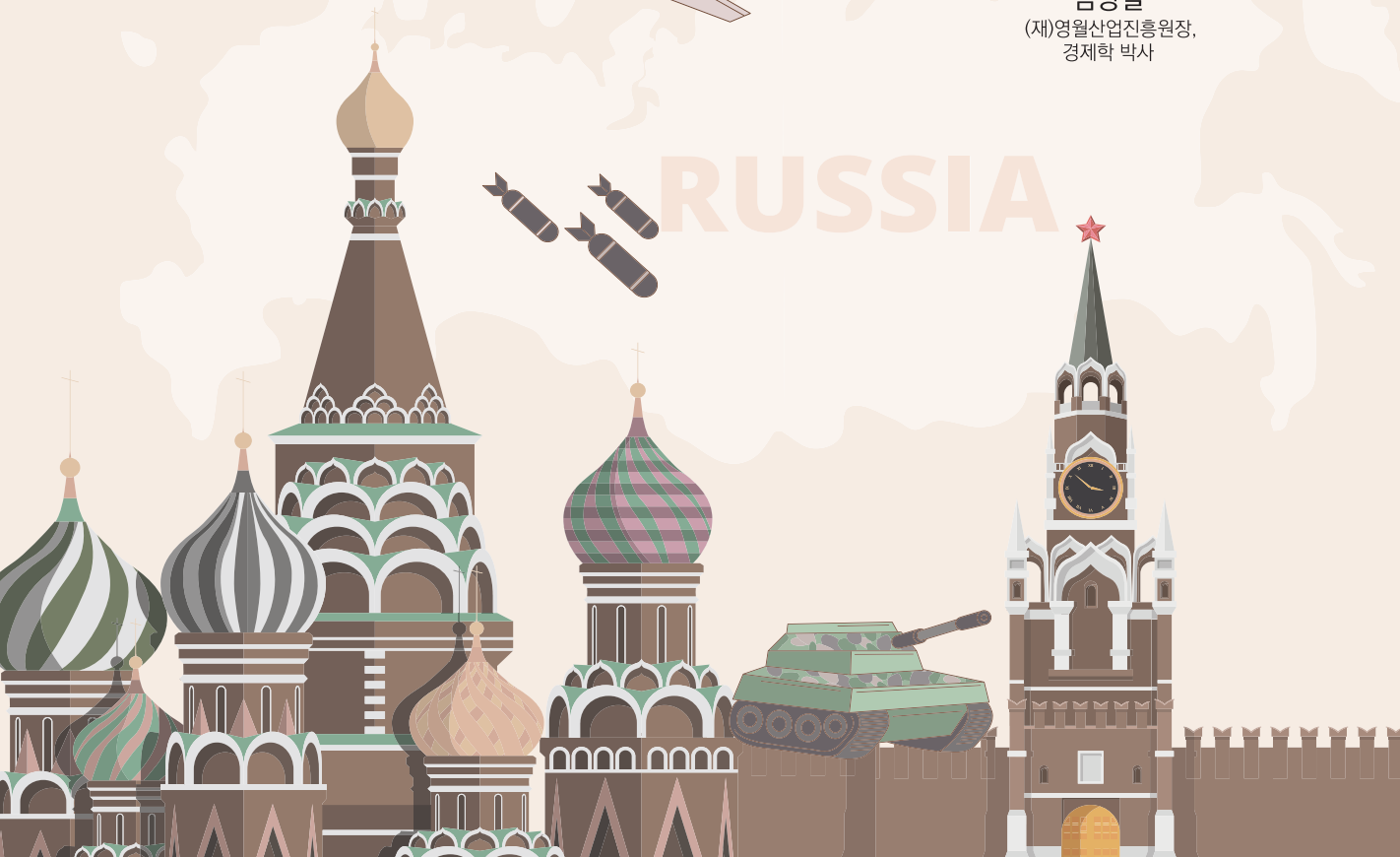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강원도 무역기업 대응방안



엄광열
(재)영월산업진흥원장,
경제학 박사

RUSSIA



1 문제제기

세계 패권 경쟁을 놓고 미·중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다양한 이슈가 혼재된 결과로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변수가 없는 한 단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 묘수도 없어 보인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으로 정치·경제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고, 북한은 핵 무력을 법제화하며 단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달러의 강세도 여전하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의 증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야기하여 글로벌 경제는 한마디로 신(新)냉전 시대이자 퍼펙트 스톰 그 자체로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 불황으로 더딘 일상회복과 경제리스크 증폭, 고령화 사회 심화, 지역소멸 위기,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 대응에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과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불균형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강원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필자는 세계 경제 불황 리스크와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장기전 흐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강원도는 해양을 축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게이트 전략을 만들어 “북방으로 가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분명 북방경제의 시계추는 강원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대러 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과의 운송량이 감소한 대신 아시아 및 기타 국가와의 운송량이 증가하여 이를 상쇄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인 속초시(75.7%), 양양군(73.1%), 동해시(60.8%)는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강원무역의 현재를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에 그동안 강원도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중소무역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제재와 한·러 교역의 현재

1. 한-러 교역의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이후(1990) 교역규모가 매년 확대중에 있으며, 1992년 1억 9,291만 달러, 1993년 15억 7,599만 달러, 20년 후인 2012년 211억 5,70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기준 對러시아 8위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약 2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의 對한국수출 규모는 168억 달러로 전년대비 35.52%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178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한 후 가장 높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무역 규모는 미화 약 9억불(2021년

기준)로 무역상대국 69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기업은 자동차, 건설장비, 화장품, 가전 등 5,370개 기업이며, 수입기업은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2,850개 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은 자동차, 압연제품, 화장품, 건설장비 등 2,450개 기업이며, 수입기업은 사료, 식물성기름, 희귀가스, 가전 등 860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우리나라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무역통계

(백만불, %, 2021년 기준)

구 분		무 역	수 출	수 입
러시아	무역 비중	2.2%	1.5%	2.8%
	금 액	27,337	9,980	17,357
우크라이나	무역 비중	0.1%	0.1%	0.1%
	금 액	890	581	3

자료 : 관세청, 2022. 3. 27.

2. 우리나라-러시아 주요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의對러시아주요수입품은 나프타 (대러시아 전체 수입 비중 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 에너지 수입이 전체 러시아 수입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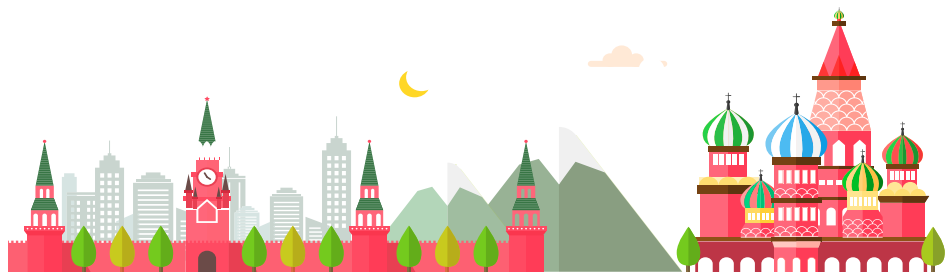
품목별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러시아 비중으로는 나프타 23.4%(수입국가 기준 1위), 원유 6.4%(4위), 유연탄 16.3%(2위), 천연가스 6.7%(6위), 무연탄 40.8%(2위) 등이다.

〈표 2〉 우리나라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백만불, %, 2021년 기준)

구분	품 목	수 출		품 목	수 입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러시아	승용차	2,550	25.5	나프타	4,383	26.8
	자동차부품	1,509	15.1	원 유	4,269	24.6
	철구조물	486	4.9	석 탄	2,566	14.8
	건설장비	336	3.4	천연가스	1,715	9.9
	화장품	228	2.3	백 금	593	3.4
우크라이나	승용차	135	23.3	사료(밀,옥수수)	143	46.4
	압연제품	67	11.6	식물성기름	34	11.0
	화장품	40	7.0	희귀가스	29	9.4
	자동차부품	32	5.6	곡 류	20	6.4
	타이어	28	4.9	가전제품	18	5.8

자료 : 관세청, 2022. 3. 27.



2 강원도 對러시아 정책 추진동향과 러시아 교역의 현재



1. 강원도 對러시아 정책 추진동향

강원도 對러시아 정책은 악순환의 반복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리적으로 해양과 대륙세력의 대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對러시아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물류정책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역사적으로 한·러 수교(1990년), 한·러 FTA 공동연구 개시와 계속 협상(200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2015년) 등으로 대변된다. 한 마디로 노력과 중단, 굴곡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해양을 통한 대륙으로 가는 경제협력 사이클이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구체적 컨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움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지자체인 동해시가 항만을 중심으로 북방경제를 표방하고 러시아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가고 있어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러시아, CIS 국가 등 이념(이데올로기)이 대립하는 국가와의 정책이기에 바다와 연결한 국가, 지자체는 큰 틀의 영역에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정부와 정합성

이라는 논리 개발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환동해권 지방정부 중심의 한·러 지방정부 포럼, 동북아지사 성장회의(1994년 강원도 제안으로 출범, 26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27회), GTI회의 및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9회), 러시아 연해주 무역 사무소 개소 (2011년 4월)¹⁾ 등 다양한 관점에서 對러시아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상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지방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쳐 러시아 가는 방향타 설정에 어려움이 반복되어 왔다.

그나마 강원도와 동해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對러시아 정책은 좀 나은 편이다. 러시아로 출항하는 경제의 꽃인 한·러 항로(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가 쌍방의 이해상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지자체가 추진한 대표적 사례로 속초항과 동해항이 있는데, 속초항은 2000년 4월 강원도와 속초시, 범한상선, 일본, 중국,

1) 강원도는 1992년 러시아 연해주와 인연을 맺은 뒤 1994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1998년에 자매결연 등으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무역사무소는 2018년 7월 러시아본부로 승격되었다.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여한 동북아페리(주)를 설립하여 러시아 자루비노항(중국 훈춘 진입)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경유하는 ‘동춘호’(1만 2,961톤)가 백두산 항로를 10년 이상 운항한 역사(현재는 국제항로가 없는 항만으로 전략하여 표류 중)와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묵호항의 경우는 2008년 1월 11일 장금상선(淸) 골든게이트 호(1만 7천 789t급)가 러시아 보스토치니항~동해항~부산항 연결 컨테이너선 운항을 개시하여 2011년 6월까지 운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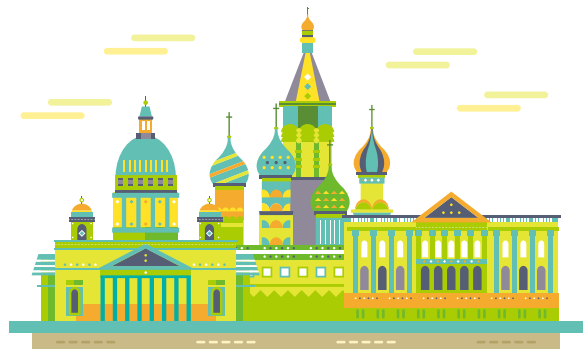
2009년 6월 29일 동해항~일본 사가이미나토~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운항하는 DBS 크루즈훼리(주) 1만 1,400톤급 ‘이스턴 드림’호가 운항을 시작하여 2020년 4월까지 운항 후 중단하고 두원상선이 이를 인수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6일 선사인 MCC 트랜스포트(TRANSPORT)의 RHL 아스트롬호가 컨테이너선 항로를 재개하였으나 2016년 9월 5일 컨테이너선 운항이 중단되었다.

현재 강원도 무역항의 정기항로는 두원상선이 운영 중인 카훼리 기능의 한·러 항로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물동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2. 강원도 러시아 교역의 현재

강원도 연간 수출액(2021년 기준)은 2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국(6444억 달러) 대비 비중은 0.42%로 2020년 비중(0.39%) 대비 0.03%p 상승하였으며 전국비중 대비 지난 10년간 0.5%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비중 1%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 및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서 전체 무역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강원 수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對중국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강원도 수출은 10% 감소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수입 확대로 173.4% 급등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고환율·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강원도 무역적자가 13억 달러로 사상 최악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강원도 수출현황

년도	수출액	전국대비 강원도 비중
2012	21억 4,222만	0.39%
2013	21억 7,328만	0.39%
2014	20억 6,952만	0.36%
2015	18억 8,129만	0.36%
2016	16억 5,949만	0.33%
2017	17억 8,275만	0.31%
2018	20억 9,659만	0.37%
2019	20억 8,787만	0.39%
2020	20억 2,333만	0.39%
2021	27억 2,766만	0.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이에 반해 對러시아 무역 창구인 동해항의 경우는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며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다.

지난 9월까지 동해항의 수출액은 6억 231만 달러로 지난 2014년에 달성한 6억 6만 달러보다 상회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동해항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선과 합금철·시멘트 등 기존의 주력제품에 중고 자동차, 건설기계, 담배, 화장품 등 對러시아권 일상 용품의 증가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전선류가 1억 6,561만 달러, 합금철 1억 1,914만 달러, 중고 자동차가 1억 1,68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시멘트와 황산 등 꾸준히 실적을 내는 제품들과 함께 담배, 화장품, 세제 등 일상 용품의 수출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액은 2억 1,883만 달러의 러시아가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미국, 대만, 네덜란드 순이었다. 특히 상위 20개 수출국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르기스탄 등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4〉 강원도 대러시아 수출입현황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중량	금액	중량	
2022	1,801,028	312,435,656	3,706,352	7,070,066,594	-1,905,323
2021	9,979,539	1,895,597,974	17,356,692	43,286,584,909	-7,377,154
2020	6,899,968	1,480,577,828	10,630,194	44,243,627,626	-3,730,226
2019	7,774,133	1,702,493,055	14,566,507	48,648,320,413	-6,792,374
2018	7,320,899	1,603,672,372	17,504,050	52,539,074,092	-10,183,151
2017	6,906,618	1,458,834,701	12,039,530	44,523,284,854	-5,132,912
2016	4,768,751	1,182,039,762	8,640,613	41,456,180,050	-3,871,862
2015	4,685,732	1,303,466,142	11,308,287	41,884,441,913	-6,622,5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강원도 무역기업의 대응방안



러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은 그동안 정치 이념과 국경이 장애요인이 되어 상호 간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경제권이었다. 한·러 수교 후 지난 30년 이상 경제 협력을 통해 구축된 파트너십과 노하우를 토대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러 양국은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강원도 동해항과

러시아 극동지역이라 본다. 이에 필자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동해항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간 FTA 및 한국-EAEU FTA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상황으로는 러시아와 FTA 체결이 단기간에 타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및 서방과의 마찰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철한 시각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한-러 FTA를 추진함은 물론 포괄적인 한-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도 추진해야 한다.

한-러시아 FTA 및 한-EAEU FTA 체결은 글로벌 무역분쟁 확산과 대외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기업에게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한-러시아/EAEU FTA 무역효과

구분	수출변화율(%)		수입변화율(%)		총교역 변화율(%)		무역수지 증감(십억달러)	
	(1)	(2)	(1)	(2)	(1)	(2)	(1)	(2)
러시아	2.64	40.65	2.17	13.91	2.36	24.55	-0.062	2.355
EAEU	0.011	55.67	-0.018	15.29	0.004	45.68	0.000	0.902

주 : (1) 한-러시아 FTA(서비스/투자 부문), (2) 한-EAEU FTA(상품포함 포괄적)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20).

강원도는 환동해권 북방 물류 전진기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수산물, 에너지 등 교역을 확대 중에 있다. 동해신항이 건설중이며,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 북평산업단지와 동해자유 무역지역, 송정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시설이 산재해 있고, 동해중부선 철도 완공예정, 경강선 KTX동해역 연장 등으로 중부내륙지역 물동량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 동해세관은 대구본부세관 권역 내에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환동해권 북방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기관의 승격과 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강원도가 북방 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요충지로 거듭나는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물가격 안정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냉동명태(원물) 비축 물량 확대 및 조기 방출로 수급을 안정화 하여야 하며, 러시아 수역 조업 선사(단독, 합작)의 어획 물량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의무 판매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합작선사의 2차 조업(7~10월, 베링해) 불투명으로 1차 조업(1~3월, 오츠크해) 물량의 판매 기피(냉동명태 보관료보다 가격 상승 폭이 높아 출하 고의 지연)로 원물 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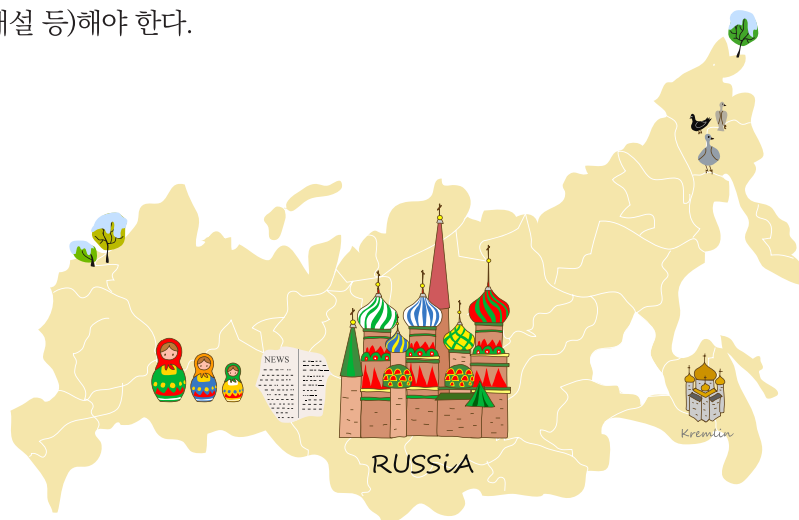
셋째, 수입 대체 전환전략이 필요하다. 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수역 선사 조업 불가시 미국, 캐나다산 냉동명태 대체 품목 수입 방안(관세율 인하 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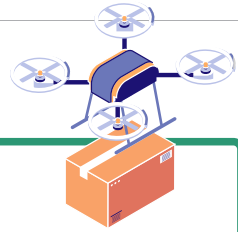
넷째, 강원도의 실리가 있는 북방향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웨어유지, 컨테이너 항로개설 등)해야 한다.

다섯째, 강원도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무역보험 갱신, 대체 수입선 발굴용 수요 조사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경제단체, 유관기관,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시스템화해 러시아 수출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전략, 중장기전략으로 구분하여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비해 산업계와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애로 사항에 대한 상시 접수를 위한 창구의 일원화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도 현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러시아 현지 유통 파트너나 전문 컨설팅 기업과의 능동적인 협력과 대응 준비 자세가 요구된다.





4 제언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단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코로나19의 산발적 재확산 조짐,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장기화,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어느 하나 낙관함이 없어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오프쇼어링(offshoring)에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인구증가 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무쌍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상술한 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과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생존을 위해서 FTA 활용은 이제는 필수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FTA 수출기업들도 이러한 사례를 모니터링하

여 수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역 품목 다변화와 신규 중소기업들의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인 자동차, 전자제품 위주의 전략체질을 전환시켜 가면서 비즈니스 상담회, 컨설팅, 온라인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다양한 북방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서방 주요국 대 중국·러시아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한-러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전략을 기대해 본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당신에게 전략이 없다면, 당신은 他人의 전략의 일부이다”라고 갈파 했다. 복합 위기에는 복합적인 대응 전략과 구체적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일 것이다.

본 원고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언론사 등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편집되었음을 밝힙니다.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November 2022 Vol. 04 (통권 40호)